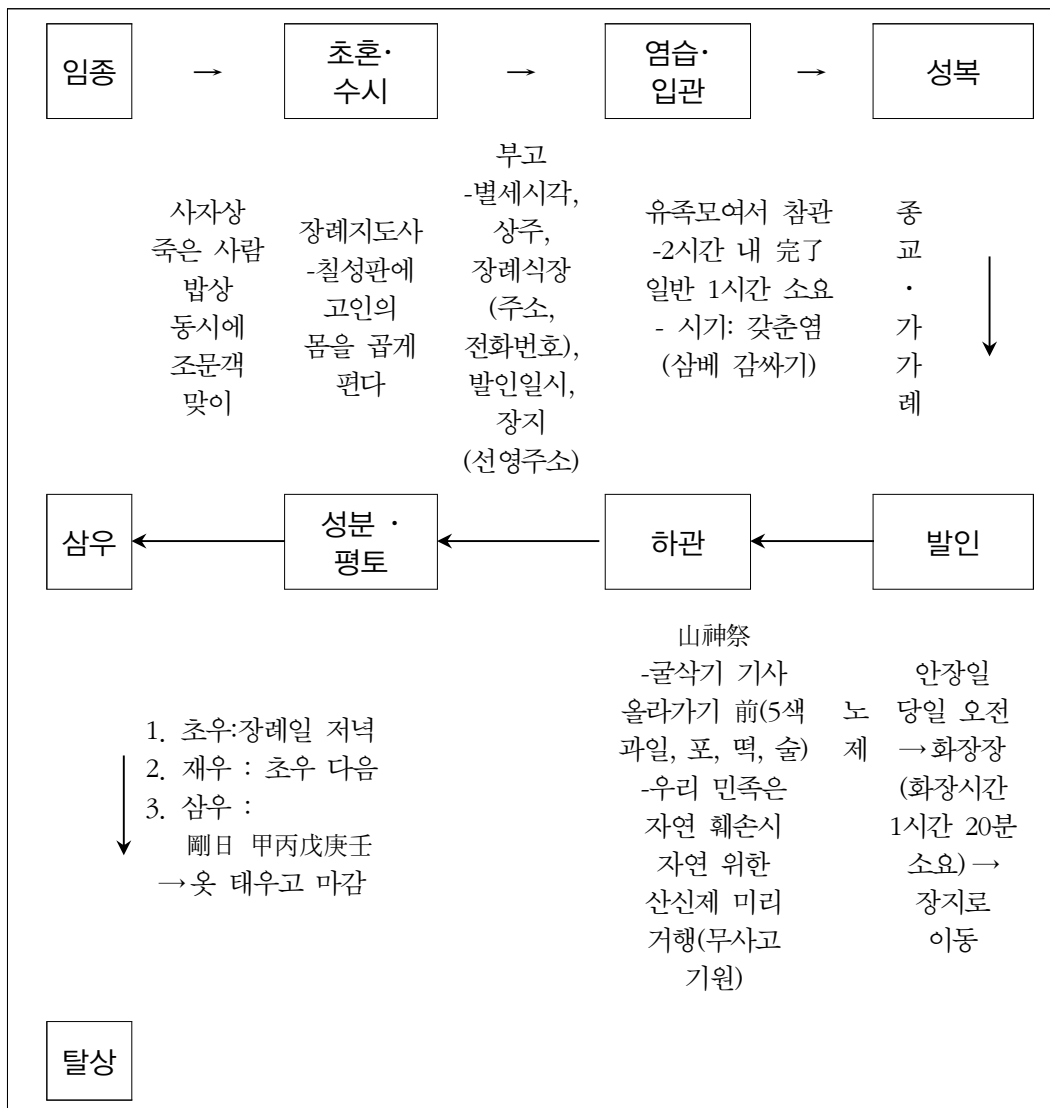


## 제7장. 상·장례 절차와 묘역관리

### 1. 상·장례절차

〈그림 32〉 상·장례 절차도



- ① 상(喪)의 발생 - 영혼의 유체 이탈, 의사 사망확인
  - ② 3~5일장 - 유체 이탈 후 영혼의 유체 근처에서 머무는 기간
  - ③ 화장이 대세가 되어가는 장례 추세
- 화장 : 최근 우리나라 전국화장률 80% 상회 수준으로 대부분  
 매장 : 농촌지역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전통적인 안장방식  
 자연장 : 화장 후, 수목의 뿌리나 잔디 밑에 매장
- ④ 바르도(BARDO) - 유체 이탈 후 영혼계 가기 전의 중간 상태기간<sup>25)</sup>
  - ⑤ 영혼계로 천도 - 「바르도」 이후 靈界로 천도, 극락왕생, 환생
  - ⑥ 묘지 관리 - 명당은 조상이 후손에게 삶에 충실하라는 메시지

## 2. 매장 산소 조성 절차와 방법

### (1) 산소를 조성할 대지를 구하고 자리를 정한다.

미리 사전에 명당에 모시겠다는 지극한 효성스런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준비하여, 현명한 지사와 협의하고, 감정하여 풍수적 명당을 갖춘 부지를 매입한다. 경계측량을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 조상 선영에 매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산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장비를 동원하기 보다는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 (2) 상 발생 시에는 숙련된 인력으로 묘 조성작업을 실시한다.

사전에 정한 부지 내에서 혈장의 요건을 갖춘 곳에 묘역공사 전문인력이 3일장 내에 신속하게 조성하도록 작업조치를 한다. 공사팀은 유

---

25) '티벳 사자의 서'에서 인용.

족측과 경비를 합의하고, 하관시간에 맞게 책임지고 작업해야 한다.

### (3) 현장 작업

공사팀은 묘소 조성 작업을 ①위치 정확, ②작업 정성, ③가격 정직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

첫째, 진입도로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설하면서, 안장작업에 필요한 잔디, 석회 등을 운반한다. 안장 당일에 유족들이 편리하도록 진입 통로를 확보한다.

둘째, 봉분에 그늘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소 주변 수목제거를 최소화한다.

셋째, 묘역은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도록 자연지형을 살려서 조성한다. 추후 하자보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을 철저히 한다. 공사 대금은 공사 종료 후, 유족과 같이 확인하고 현장에서 정산한다.

(4) 법적 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6.20.) [법률 제 15269호, 2017.12.19, 일부개정]의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항에 의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사설묘지 조성은 별도의 조항을 적용 받는다.

(5) 조성한 묘역에 대해서는 조성 1년 후, 묘역 안정화 여부를 사후 서비스 차원에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보강공사를 한다.

## ▣ 참고자료 1.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묘역공사 및 안장식 장면 기록

2009년 8월 18일(화) 오후 2시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가 공식 발표되었다, 필자는 당시 해남군청 서울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비보를 받고,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향하였다. 지하빈소에 내려가서 유족대표인 차남 김홍업 전국회의원을 만나 묘역공사책임자로 선임되었다. 이튿날 19일(수) 공사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면서 작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장례식은 국장으로 하고 장지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한다’는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 필자는 유족대표로부터 정식으로 ‘국장묘역공사책임자 선임계’를 받아, 장지인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에 제출하면서 묘역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1979년 박정희 전대통령 현직 대통령 서거 이후, 두 번째 국장이었다. 법정으로는 9일간 가능하나 장례기간이 길어지면 민생 불편이 있다고 짧게 6일간(2009.8.18.~8.23)으로 정하였다. 30년만의 국장이지만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과거 국장자료가 폐기되고 없었다. 모든 국장자료는 새로 만들면서 기일 내에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서울 동작동 현충원 안장지는 이미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 사전 답사하여 보아둔 자리가 있었다. 김홍업 유족대표의 매장지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법정 80평 규모의 국장 묘역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실제 공사일은 20(목)~22(토)일 단 3일에 불과하였다.

국장 컨셉은 ‘봉분을 제외한 모든 묘소주변을 녹색잔디로 깔아서, 대형 태극기에 덮인 대통령님의 관이 선명하게 입장하는 안장식’으로



거행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장례식이 전직 국가원수로서 위대하게 돋보이면서도, 동시에 묘소 조성은 고인의 뜻대로 소박하게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20일(목) 첫날부터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새벽2시까지 작업을 하였다. 첫날 작업으로 어느 정도 묘소 윤곽이 순조롭게 나왔다. 그날부터 나의 생활은 집에 가서 그날 작업 내역을 정리하고 다음날 계획서를 짜고 점검하고 취침하는 일정이니 국장기간 내내 매일 딱 2시간 자는 나날이었다. ‘국장시 묘역선정 및 조성에 관한 작업지침’을 조문화하면, 그 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작업을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21일(금) 2일째 작업으로 국가원수묘역 외곽사성이 반원형태로 완성이 되고 파란 잔디가 곱게 깔렸다. 대통령 묘역답게 안정된 계단식으로 크고 웅장하게 보였다. 관을 안장하는 묘역 앞마당 공간을 조성하여 품격을 높였다. 앞마당과 묘역 아래 큰 길을 연결하는 임시 계단 설치가 급한 작업이었는데, 현충원에서 맡아주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길 아래는 안장식장 무대를 설치하고 있었고, 연결 계단 설치 작업은 철제용접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23일 안장식에는 차질이 없어 보였다.

22일(토)은 공사 3일째이며 안장일 하루 전으로 사실상 국장 준비를 끝내야 했다. 아침에 일찍 김홍업 유족대표의 사전확인이 있었다. 다행히 유족들은 묘역 조성에 매우 만족하였다. 오후에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관이 들어갈 자리를 1차 파보는 외광작업을 진행하였다. 가

로 세로 3미터 나무틀을 짜서 묘역중앙에 놓고 곡괭이와 삽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였다. 긴장된 상태에서 허리 깊이 정도 파들어 가자 땅기운이 선명하게 들어오고 뭉쳤다는 오색혈토가 나오기 시작했다. 타조 알 크기의 빛나는 오색혈토 덩어리를 기자단과 참관인들에 보여 주면서 명당이라고 확인시켜 드렸다.

예상한 6자 깊이를 한꺼번에 모두 파서 광중을 조성하면 땅 기운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날은 4자 깊이에서 일단 작업은 마무리하였다. 나머지 더 깊이 내광을 파서 하관작업을 준비하는 것은 안장식 당일 운구가 도착하기 2시간 전까지 완성하면 되는 것이었다. 혹시 비 올 것에 대비하여 광중 위에 사각형으로 천막을 치고, 광중 지면 위에는 방수막으로 철저히 잘 덮어두었다. 삼엄하게 밤샘경비를 하였다. 국장의 모든 과정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록하는 전담직원이 있어서 매일 작업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비디오 촬영을 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게 녹화하였다.

2009년 8월 23일(일) 4일째 안장일이 밝았다. 아침 일찍 현충원을 걸어 들어가는데 하늘도 맑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좋은 느낌이 들었다. 오전에 광중에 들어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을 기록한 지석을 다시 점검하고, 내광 흙 파기 작업에 착수하였다. 최종 관이 들어갈 자리를 파고 깨끗하게 정리하여 하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다시 정밀하게 분금 작업을 하고 조심스럽게 파 들어가는데, 내광의 흙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았다. 지기에너지가 뭉쳤다는 증거이며, 지기에너지가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선명하게 입력되는 선

들이 보였다.

단단한 비석 비토 정말 명당의 전형적인 오색혈토가 출토되었다, 내광 흙은 오염되지 않게 한편에 깨끗하게 보관하여 하관 후에 다시 덮는 흙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마지막 하관 예행연습을 하고,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와서 광중에 대한 최종 감식을 하였다. 박신한 단장은 이상이 없고 좋은 자리라고 확인하였다. 운구차는 동교동을 거쳐 시청광장을 지나 오후 5시 현충원에 도착하였다. 안장식은 의장대의 주악 연주 속에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종교의식을 거쳐 6시경 하관하였다. 대형 태극기에 덮여 3군 의장대가 운구하는 대통령님의 마지막 모습은 엄숙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하관한 직후 바로 내광에 내려가서 패철로 분금을 확인하고 올라왔다. 이어서 관을 흙으로 덮는 허토작업을 진행하였다. 가족, 국무위원, 동교동 비서진, 정동영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순서로 국화를 바치고 삽으로 관위에 흙을 뿌렸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울고 슬퍼하셨다. 흙을 파낸 역순으로 평토작업을 하면서 지석을 묻었다. 묘소 주변 폴리스라인에서 안장식 장면을 보고 애도 하시는 수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침착하게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날이 어두워 밤 9시경 일단 봉분만 흙으로 덮고 종료하였다.

24일(월) 이후 묘역공사 작업은 국방부 규격에 따라서 봉분을 만들고, 봉분에 잔디를 심었다. 묘 앞마당을 구축하는 자연석 석축을 5.5미터 높이로 쌓았다. 묘 돌레석은 광중에 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 설

치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박하게 조성하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공법이기도 하였다. 공작새 형태 명당이므로 공작새알 모양의 큰 돌을 묘역 마당 앞에 놓아서 석축 쌓기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묘역 출입로는 대통령님 막내 동생의 말씀대로 휠체어가 출입하기 편하도록 묘소 옆으로 조성하였다. 소나무 사이로 걷는 운치가 있는 출입로가 되면서, 계단을 설치하지 않아서 공사비를 크게 절감하였다.

9월 1일 김대중 전대통령 고향 하의도에서 신안군 하의면 박상명 부면장이 1박2일에 걸쳐 하의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큰 배롱나무를 실어왔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의 정성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길이 남을 것이다. 기념식수 행사는 한화갑 전민주당 대표와 주장배 신안군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거행하였고, 우리 작업단을 격려하여 주었다. 마침 김대중 전대통령이 좋아하는 빨간 영산홍 80년생 나무 2그루와 묘소 상징나무라 할 수 있는 우산형 소나무가 동시에 구해졌다. 필자의 고향 전남 해남에서 김병욱 도의원이 작은 배롱나무를 2그루를 가져와 함께 심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상징인 인동초를 심으면서 조경작업을 마감하였다.

묘역공사 마감작업은 10월 6일 49재에 맞추어 국립서울현충원 규격에 맞는 석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40일간 계속되어온 국가원수묘역 조성공사는 완벽하게 마무리하였다. 세계유산 신라 왕릉이 2천 년을 가듯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묘소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평화통일과 민주화 상징으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사진 7-1〉 김대중 전대통령 국회 빈소



〈사진 7-2〉 김대중 전대통령 장지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사진 7-3〉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지 조성 전 전경(필자 사진 합성)



〈사진 7-4〉 국립서울현충원 내 안장지 수목 제거





〈사진 7-5〉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의 혈장터 정지작업



〈사진 7-6〉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의 입수, 선익, 잔디식재 공사



〈사진 7-7〉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의 광중 파는 나무틀 설치



〈사진 7-8〉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의 외광 파는 작업





〈사진 7-9〉 외광파기 종료 후 보관 작업



〈사진 7-10〉 외광 보존 지붕 씌우기 작업



〈사진 7-11〉 안장식 행사장과 묘역 전경



〈사진 7-12〉 묘역 입수에 본 안장식장 전경





그의 성은 김씨, 본관은 순해, 휘는大中, 호는 植虎이다. 1924년 1월 6일(양력)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에서 아버지 김승진, 어머니 장수금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초양서당과 하의도 보통학교를 다녔다. 목포님은 대군의 영복함을 살리기 위해 목포로 이사했고, 대군은 전라 강 목포 목교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1939년 5년제 목포 상업학교에 입학하여 유망한 청년실업가로 명망이 높았다. 1945년 차용애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1950년 9월 목포철무소에 간첩다가 일민구들의 무차별 학살극에서 극적으로 탈출 살아났다. 이승만 대통령의 특대 정치와 부산 김치파동을 현지에서 겪으며 정치에 뜻을 두게 되었다. 1954년 목포에서 민의권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56년 장면박사 친유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듬해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토머스 모어이다. 선거에서 기투 낙선을 하다가 1961년 5월 강원도 인제 보철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의원선서조차 하지 못했다. 1962년 5월 정치적 동지인 이회호와 결혼했다. 1963년 11월 목포에서 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집요한 낙선 공작에도 당선되어 이름을 떨쳤다. 1970년 40대 기수론을 앞세워 대통령후보로 똘똘했으나 이듬해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다. 국회의원선거 지원유세 중 승용차가 대형트럭에 받쳤으나 극적으로 살아났다.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제2의 쿠데타가 일어나 망명길에



올랐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한국정보부에 의해 납치당해 두 년의 옥을 고비를 넘겼다. 한국에 풀려와 오랜 기간 가택영감을 당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에 잡혀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미국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구명 운동으로 감형되어 다시 망명길에 올랐다. 1985년 양명 생활 2년 만에 귀국을 강행, 198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8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제1야당 총재가 되었다.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패배했다. 그해 정계를 은퇴하고 영구 유학을 갔다가 귀국하여 1994년 1월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을 설립하였다. 1995년 정계에 복귀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1997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집권교체를 이룩했다. 1998년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그해 12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3년 2월 퇴임하여 서울 동교동 사저에 머물며 남북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86세를 일기로 서거하시었다. 퇴임한 그가 물려줬다. 자손으로는 아들 홍일, 홍업, 홍걸이 있고, 손자와 손녀는 지영, 정화, 화영, 종대, 종만, 종화, 종석이 있다. 수많은 학위를 받았고, <우등 일기>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사진 7-13〉 김대중 전대통령 일생을 기록한 묘지석



〈사진 7-14〉 내광파기 종료 후 모습



〈사진 7-15〉 내광 오색혈장의 지기에너지를 나타내는 선





〈사진 7-16〉 분금작업 준비



〈사진 7-17〉 최종 분금 확인 작업하는 필자



〈사진 7-18〉 김대중 전대통령 유해 운구



〈사진 7-19〉 3군 의장대에 의한 하관 작업





〈사진 7-20〉 김대중 전대통령 관의 분금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



〈사진 7-21〉 무궁화가 새겨진 향나무 횡대로 관을 덮은 상태



〈사진 7-22〉 이희호 여사부터 가족 허토 작업



〈사진 7-23〉 현직 국무위원, 전직 대통령 비서진 등 순서로 허토 작업





〈사진 7-24〉 정동영 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의 헌화



〈사진 7-25〉 묘지석 매장 작업



〈사진 7-26〉 봉분 설치 작업(생석회를 섞어서 방수)



〈사진 7-27〉 성분 작업 종료 후 전경





〈사진 7-28〉 기념식수(한화갑 당대표, 차남 김홍업 전국회의원, 주장배 의장)



〈사진 7-29〉 묘소 입구 진입로 완성 후 전경



〈사진 7-30〉 석물 설치 후 묘소 완성된 전경



〈사진 7-31〉 김대중 전대통령 묘소 안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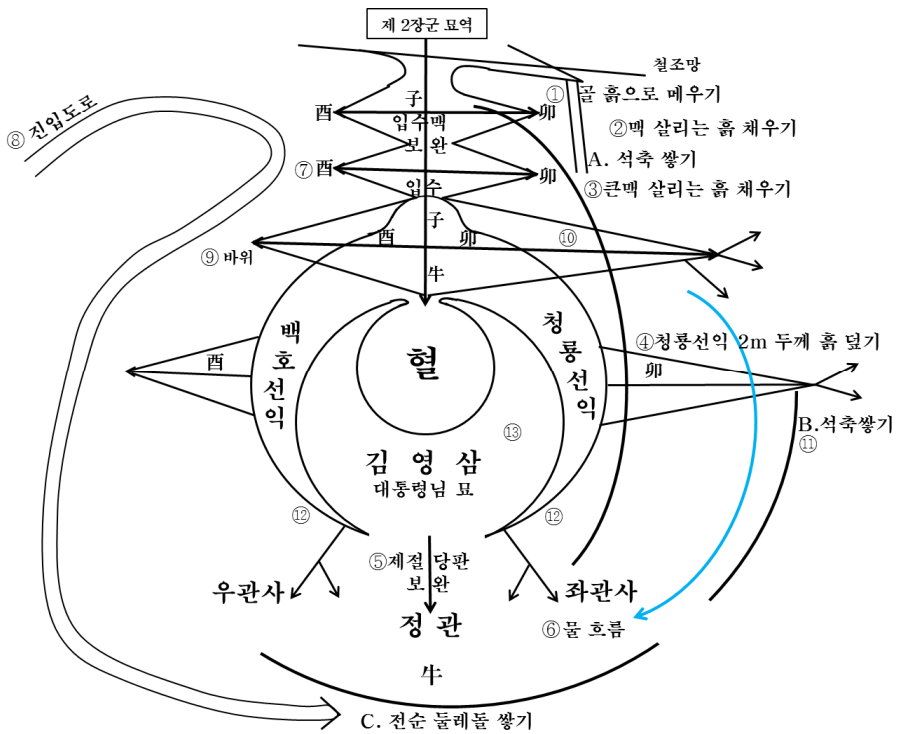


▣ 참고자료 2. 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 묘역공사 기록



〈그림 33〉 김영삼 전대통령 묘역공사 후 위성사진 전경(네이버지도)

〈그림 34〉 김영삼 전대통령 묘의 혈장구성과 공사 핵심사항



출처: 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보고서, 2015.



〈그림 35〉 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 하관 장면  
(이데일리 자료)



〈사진 7-32〉 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 안장일 작업상태(2015.11.26)





〈사진 7-33〉 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 봉분작업 종료 후 필자(2015.12.2)



〈사진 7-34〉 김영삼 전대통령 묘소 오르는 길 - 축대 위에 튀어나온 바위는 혈장의 입수에서 백호축 십자바위이다.〈그림 34에서 ㉠바위〉



〈사진 7-35〉 김영삼 전대통령 묘소



〈사진 7-36〉 김영삼 전대통령 묘소 혈장 전경



### 3. 조상 묘소 관리

#### (1) 조상 산소 에너지의 영향

증조부모 산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탄생하는 우리는 성묘와 묘소관리 어려움이 있지만, 조상묘를 함부로 파헤치지 말아야 한다. 조상묘의 파괴나 이장, 개장유골 화장 등은 같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후손에게 직·간접의 간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매장된 상태에서 자연으로 고요히 환원되고 있는 조상의 유골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조상 유골은 후손에게 생기에너지를 주는 생명체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 조상 산소에 대한 성묘는 집안이 모이고 단결하는 전통적인 큰 효도이며 후손으로서 중요한 집안 행사라 할 수 있다.

#### (2) 묘소관리 지침

전체적으로 조상 산소를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후손의 마땅한 임무라 생각한다.

첫째, 묘소관리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묘의 광중에 지상의 물이 절대로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혈심에 묘를 써도 광중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혈심은 썩고 파괴된다. 시신이 물에 잠겨 썩음으로써 그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바뀌어 후손에게 온갖 피해를 주게 되면 안 된다.

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① 산소의 경내 전체적인 경사도를 잘 잡아서 비가 올 때 물이 바로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여름철 집

중 호우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② 봉분 뒤의 사성(砂城: 月形 산소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든 반달모양)을 만들면서 뒤에 고랑을 파서 오히려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다. 그 곳을 통해 물이 광중으로 침입할 수 있으니 흙으로 사성 뒤의 낮은 부분을 메워야 한다. ③ 산소에서 좌우로부터 위로 30m 이내의 곳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여건(얕은 웅덩이나 흙을 파낸 곳 등)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곳에 고인 물이 결국 광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④ 만약 봉분이 훼손되면 빗물이 광중으로 침입하고, 바람도 광중에 침입하니 즉시 개수해야 한다.

둘째, 조상 산소에 과도한 치장을 해선 안 된다. 특히 묘 돌레석(묘 두름돌)을 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산소에 돌레석이나 상석 등 석물치장을 할 때, 자칫하면 광중에 물과 바람이 침입할 수 있는 것이니, 굳이 돈 들어가면서까지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석물을 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산맥은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끔찍한 일이다. 석물 치장 공사 시행착오로 인해 광중에 물과 바람이 침입하여, 안정되어 있던 에너지가 흔들려서 간섭에너지로 돌변하게 되면 그 자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돈 버리고 산소 망치는 격이 된다. 명당 조상 산소 기운으로 생활형편이 넉넉해지면 부모와 조상의 산소 치장이라도 해서 그 동안 못 다한 효도를 하고 싶어 조상 산소에 손을 대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긋난 효도가 되고 만다.

셋째, 산소자리가 사신사와 혈장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함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런 곳의 산소는 주변에 연분이 되

는 환경조건(산·물·바람·햇빛)으로부터 에너지의 응기(應氣)를 받지 못하고 설기(洩氣)가 되어 토질이 산화되고 지기가 허약하며 잔디가 죽고 봉분이 자꾸 허물어진다. 땅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면 산소 경내 및 주변 전체에 물이 스며들고 바람을 맞게 된다. 이런 곳은 경내 주변의 땅을 전체적으로 한자(一尺) 정도 파서 석회와 흙을 5대 5 비율로 섞어서 다시 원상으로 잘 다져 놓고 잔디를 심고 주변의 바람 막이 상록수를 심으면 조금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잔디가 잘 살지 않는 경우는 그늘지거나 바람맞는 곳 이거나 수맥이 흐르는 곳이므로 그 원인을 잘 관찰하여 시정해야 한다.

넷째, 주변의 나무 관리이다. 묘의 광중에서 30m거리 이내 거리에는 뿌리가 멀리 뻗어가는 나무가 없어야 한다. 나무뿌리는 거름기가 많은 사람의 시신을 찾아들어가 그 유골의 진기를 빨아먹고 또한 유골을 칭칭 감아서 압박을 하는데 그 자손은 유골이 압박받는 부분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사업경영도 어려워지고 불의의 사고도 당하게 되는 수가 발생한다. 묘소 가까이 있는 잡목은 해마다 윗부분만 잘라서 그 키가 자라지 못하게 하여 그늘지는 것을 막든지, 뿌리가 광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별초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한식 때와 8월 장마 후 추석 전에 최소 2번은 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쌍분(묘가 나란히 2개 봉분)의 경우는 위에서 보면 여좌 남우, 절하는 아래쪽에서 위로 쳐다보면 남좌여우가 맞은 배치가 된다. 쌍분의 경우에는 묘와 묘 사이가 가까워서 웅덩이처럼 물리 고이게 해서는 안 된다. 봉분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일곱째, 묘 이장 문제이다. 묘 이장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4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 7-37〉 쌍분 산소(백사 이항복의 묘)

① 조상 묘가 나쁜 자리(봉분 주위 파괴, 물이 나는 곳, 급경사지, 사방이 노출되어 바람 맞는 곳, 골짜기에 쓴 묘, 묘 앞의 산과 물이 온통 빠져나가는 곳, 그늘져서 항상 잔디가 죽는 음침한 산소, 바로 위로 철탑이 지나가는 산소 등)에 위치하여 나쁜 기운으로 사업이 연속 실패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연속 발생할 경우

② 현재의 묘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선산 내에 최소 3-4배 좋은 자리가 있어 명당을 얻을 수 있는 경우(먼저 별세하신 부친 묘 산소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모친상 2일째 날 이장하여 일괄 보완 가능)



〈사진 7-38〉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목적으로 산소 주변의 산림이 온통 파괴되어, 봉분의 내룡맥과 주변 지형이 훼손된 경우, 정상적인 산소로서 지기에너지가 입력되지 않고, 간섭작용으로 흉해 발생시 이장이나 보완해야 한다.  
(충남 부여군 홍산면 한희동로 56번길 비홍산, 2018.8)

③ 매장한지 30년 이내의 묘로 유골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너무 오래된 묘는 유골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좋은 곳에 모셔도 발복의 기운이 적게 된다)

④ 도로나 택지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상 묘터가 파괴된 경우가 4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산소에 대하여 정통한 풍수지리 전문가와 현명한 지사의 사전 감정을 거쳐 온 가족의 합의를 통해 길일(吉日)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





〈사진 7-39〉 봉분 주변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의 묘는 이장이 필요하다

최근 조상 묘소 벌초와 유지관리로 어려움을 면하려고, 조상 산소를 온통 파헤쳐서 한자리로 모으거나 화장을 하여 봉안묘(납골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상 산소를 함부로 손대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묘소관리가 어려우면 가까운 조상 3대 묘소만을 관리하고 그 윗대 조상은 한 줌의 흙과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그냥 놔두는 것도 묘소관리의 하나의 방법이다.

성묘 시에는 항상 불조심해야 한다. 봄철에는 건조하여 크고 작은 산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묘하는 분들은 연중 가장 메마른 계절이므로 담뱃불을 주의하고 산에서 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을 찾는 효심과 함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성묘 방법이다.

## ▣ 참고자료 1. 달성 배씨 선산 묘역 보완공사 사례(2018.11)

☞ 묘 위의 사성에 물 빠짐 목적으로 파 놓은 고랑이 광중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상태로 악화시킴. 이를 교정하여 침수를 방지하면서 잔디를 전체적으로 다시 심은 공사(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산 60번지).



〈사진 7-40〉 묘 위의 깊고 긴 고랑으로 묘 침수 피해, 입력 지기에너지 훼손상태



〈사진 7-41〉 묘 위 고랑을 생석회와 흙 배합토로 메우고 잔디를 다시 심어서, 묘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입력 지기에너지를 정상화.



## ▣ 참고자료 2. 순천 김씨 선산 묘역 보완공사 사례(2017.6)

☞ 묘 입수 위에 물웅덩이가 만들어져서, 고인 물이 묘로 스며들고, 쌍분 사이의 간격이 좁아 봉분사이에 물 고이는 피해를 교정하는 공사(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655-10번지).



〈사진 7-42〉 묘소 입수 뒤 물고임과 수목 밀림상태, 쌍분 사이 물고임



〈사진 7-43〉 묘소의 입수를 생석회와 흙의 배합토로 높이고 두툼하게 만들고, 쌍분에 지기에너지가 입력되는 입혈맥을 조성하여 쌍분 사이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개선